

경향신문

1999
12월 9일
목요일 11월 2일

“여성기금은 지위향상위한 촉매”

■ 최근발족 기금추진위 박영숙 집행위원장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기금은 이처럼 소외돼 왔던 여성들의 능력과 역량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일 발족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박영숙(朴英淑·67) 집행위원장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동량이 되어 한다”며 “기금은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과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기부문화’의 미발달로 각종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여성을 위한 기금조성은 여성의 가치를 다소 겸허하는 유교의식 때문에 과거에는 시

**여성정치인육성등 사업
1천억원 기금조성 목표
우선 1백만명 기부운동**

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글로벌 펀드 등 여성을 위한 기금이 조성돼 가정폭력 피해자, 매춘여성 등 소외 계층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기금조성을 위해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유산기증운동, 기업명목의 기부, 현물과 현금 기증 등의 방법으로 약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기금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능력개발, 빈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또 여성단체의 전문성 제고, 단체 삼근자들의 복지·취우 개선 등 여성운동 지원에도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당장의 기금모금을 위해 조만간 1인당 ‘1만원’을 기부하는 추진위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1백만명 이상이 기금조성에 참여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 박위원장은 “여성기금이란 명칭이 붙었지만 조성후에는 여성을 위한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